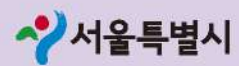


함께하는 변화, 2024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수기 공모전 사례집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최경화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어린이집 간 보육 수급 불균형 및 보육격차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보육의 신모델로 자리 잡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3년 차를 접어들면서 모아공동체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다양한 성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문조사 결과 원장, 보육교사, 양육자 모두 사업 만족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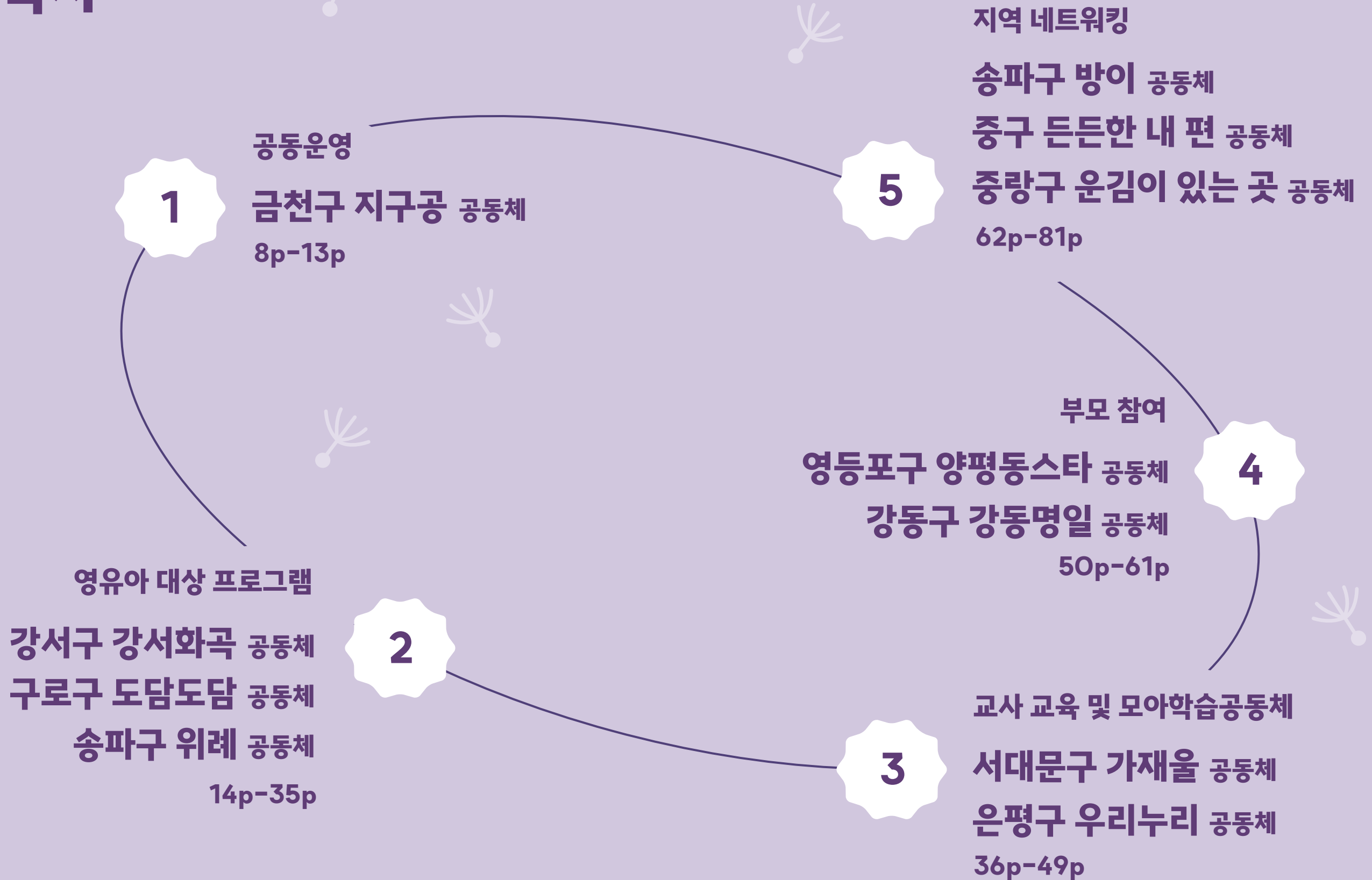
2025년까지 100개 모아공동체로 확대하고, 모아공동체 참여 3년 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동체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모아공동체가 더 나은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우수 사례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목차



01



‘지구공’ 온(溫)잇다

금천구
지구공 공동체



‘지구공’ 온(溫)잇다

지구공 공동체는...

금천구 「지구공 공동체」란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의 줄임말로 최근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 온난화 등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관내에 있는 3곳의 어린이집이 모여 보육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지구공처럼 둥글게 상생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지구를 아끼는 습관을 갖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인 만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따뜻한 마음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溫)자조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자조모임의 따뜻함을 공동체 모두에게 이어가면서 지구를 구하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아나바다 형식의 기조로 “온(溫) 잇다 공유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유 박스는 온(溫)자조모임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며, 공동체 모두가 자유롭게 물품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여 종래에는 지구를 살리며 우리가 하나 되는 모아어린이집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의 지구공 사업 - “온(溫)잇다 공유 박스”를 통한 재사용의 의미 부여”

지구를 구하는 실천 방안으로 공유 박스 발대식을 진행하여 재사용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보육과정 안에 접목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공유 박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온(溫) 자조모임 위원회에서 자율적 운영을 결정하였으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홍보(가정통신문 매월 공지, 물품 현황 사진 공지, 공유 물품 기록 대장, 공유 박스 주변 홍보물 부착 등)를 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했습

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점차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원마다 소진되지 않은 물품은공동체 내 원과 교류하며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넓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놀이 과정에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 및 천연 염색 손수건, 부모와 연계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놀잇감, 공유 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물품,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천연 염색 스카프, EM세제 등을 전시하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금천 미래 장학회’에 기부하여 관 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구공 공동체의 긍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보람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의 지구공 사업

- “온(溫)있다 공유 박스의 자발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성화”

2023년도의 운영을 통해 보람적인 결과를 낳은 공동체 내 학부모의 자발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온(溫)가족 모임 학부모님의 주도적인 운영 형식으로 발전되어 어린이집의 홍보나 독려 없이도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공유 박스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 물품의 종류가 옷, 놀잇감, 책 등에서 국한되어 있었으나 채소, 과일 등 생각하지 못한 나눔까지 이루어지며 폭넓게 운영 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내 물건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세탁 및 포장에 신경을 쓰거나, 기록 대장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니 친밀감이 형성되고 서로 간의 교류도 증진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영유아는 업사이클링 놀이 및 천연 염료를 이용한 손수건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재활용품이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통해 자신감 및 자긍심을 느껴보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예술적 경험과 시장놀이를 통해 경제 활동과 나눔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영유아의 빠른 성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녀의 물건 중 괜찮은 것들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필요한 물건을 나눔 받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로움이 많았습니다. 사용했던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영유아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교직원도 함께 참여해 보았습니다. 지구공 디딤돌모임을 통해 “온(溫)있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을 공유하였고 힐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뽑기를 진행 해보았는데,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선물을 받은 기분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연 염색을 이용하여 스카프를 만들어 지구공 바자회 물품으로 기증하여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험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동참해 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구공 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부모, 영유아, 교사, 지역사회가 하나의 원처럼 둥글게 상생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고 타 기관에서 공유 박스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영유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유와 나눔이 확장되었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다른 실천 방안으로 우유팩 자원순환사업, 패트뱅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누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



02



환경 그림책으로
배우는 초록 발자국

강서구
강서화곡 공동체

환경 그림책으로 배우는 초록 발자국



강서화곡 공동체는...

「강서화곡 공동체」는 2021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로 선정된 이래 3년 차로 공동체 어린이집 간 따로 또 같이 보육의 본질을 실천하는 목표 아래 공유·성장·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강서화곡 공동체는 ‘한빛어린이집(국공립), 꿈을여는어린이집(민간), 아기천사어린이집(가정 서울형)’, 3개의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세 영유아 148명과 모아공동체 참여 원 전체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서화곡 공동체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립 한빛어린이집은 장애 및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으로 취약 보육 및 강서구 생태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생태 친화

보육 실천을 공동체에 확산하고 있으며, 꿈을여는어린이집은 화곡동에서 큰 남부시장과 가까운 물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연장 보육에 특화되어 있고, 서울형 아기천사어린이집은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체 어린이집 간 야간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수요에 맞추어 야간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강서화곡공동체는 취약 보육, 생태 친화 보육, 연장 보육 및 야간연장 보육에 특화되어 있는 강점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매년 더워지고 있고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큰 도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

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로 현시점을 바라보고 위험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50년 이 지구의 청년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덜 아픈 지구, 좀 더 나은 지구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강서화곡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지구를 향한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024년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 학부모와 공동체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였

서울형모아어린이집 환경그림책 연구 책임연구원 -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림책 선정

영역	구분	주제	그림책명 (작가명)	그림책 내용 (요약)
자연	생물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을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渺小함을 느끼게 하여, 자연을敬畏하고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환경	환경	환경의 아름다움	환경의 아름다움	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을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환경의 위대함	환경의 위대함	환경의 위대함과 인간의渺小함을 느끼게 하여, 환경을敬畏하고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사회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알리고, 사회를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알리고, 사회를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문화	문화	문화의 아름다움	문화의 아름다움	문화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를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문화의 위대함	문화의 위대함	문화의 위대함과 인간의渺小함을 느끼게 하여, 문화를敬畏하고爱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던 ‘탄소 중립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준 축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놀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자원으로 환경 그림책의 힘을 빌려보기로 하였고 그렇게 2024년 강서화곡 공동체는 ‘환경 그림책과 연계한 탄소 중립 놀이프로그램’의 주제로 영유아 대상 공동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교육 및 그림책’ 관련 모아공동체 교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부모 교육으로는 ‘행복한 책 읽기, 즐거운 책 놀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도 환경 그림책 놀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강서화곡 공동체 교사들은 2024년 환경 그림책 선정 및 연간 계획을 위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체 연

구의 논의에 따라 환경의 날 기준에 맞는 환경 그림책을 선정하고 각 놀이별 세부 연간 계획을 통하여 놀이의 기틀을 마련한 후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교사들은 반별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계획한 놀이의 맥락에서 탄소 중립 놀이를 진행하기를 어려워하였고, 이에 ‘놀이’가 아닌 교사 주도적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를 마음에 품은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교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생태 감수성,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세부 연간 계획안을 수정하고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서화곡 공동체 모아 교사들은 디딤돌모임을 구성하고, 매달 각 원에서 실천한 환경 그림책 놀이 사례, 학부모 참여 활동, 지역 사회 연계에 대해 발표하며, 공동체 속 놀이를 공유하기고 놀이 속 어려움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 그림책 적용 탄소 중립 놀이’를 진행하면서 영유아들은 ‘탄소 중립’의 단어에 익숙해졌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던 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모임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나빠진 지구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나빠지지 않



게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반기는 자연과 관련된 환경 그림책으로 놀이 연간 계획서를 수정하여 폭넓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화곡 공동체에서 진행한 놀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3~5월

3~5월의 그림책은 ‘어스 아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질’과 관련한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은 책 속



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쓰레기, 수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 연계를 통해 모은 ‘소재 은행’(다양한 재활용품 통)에 자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은행’에서 가장 많이 모은 페트병을 사용하여 텃밭 작물에 물을 주기 위한 ‘빗물 저금통’을 만들기 시작했고, 물 조리개 뚜껑을 연결한 빗물 저금통, 페트병으로 만든 빗물 저장 장치, 스티로폼을 활용한 대형 빗물 저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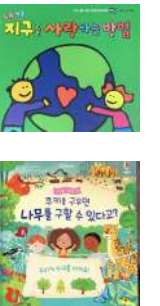
등 다양한 빗물 저금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전달하는 수로, 모래놀이 수로로 확장되어 놀이가 진행되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바뀌는 정수 놀이까지 이루어져 영유아들은 일상생활 속 물의 순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확장을 위하여 강서구에 위치한 ‘물 재생 박물관’에 방문하여 물의 순환에 관련한 설명도 듣고, 물 재생 과정을 눈으로 익히며 일상생활 속 물 아끼기에 더 열중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7월

6~7월은 그동안 모아온 소재 은행 속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던 영유아에게 ‘재활용’과 관련된 그림책을 지원하였고, 페트병, 플라스틱에서 벗어나 박스, 종이, 비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유아들은 종이상자를 사용하여 썰매 만들기, 동네 만들기 등 자원의 형태를 변형하는 ‘재활용’ 놀이에 흥미를 쌓아갔습니다. 더불어 환경 그림책 속 지구와 동물에도 관심을 보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멸종 위기 동물을 생각하고, 비닐을 활용한 이글루,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확장 놀이로 진행하면서, 재사용을 통한 우리만의 리사이클 & 업사이클 실천 시간을 가졌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으로 환경 그림책 확장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8~9월

8~9월에는 디딤돌모임 컨설팅의 피드백을 받아 자연과 관련된 ‘토양’을 주제로 그림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자 영유아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놀이 초점이 옮겨졌고, 그림책과 연계하여 놀이하면서 아이들은 “땅을 깨끗하게, 쓰레기를 줍자” 등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바깥 놀이를 하며 빗길에서 만난 지렁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렁이가 이제 나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비와 지렁이의 움직임을 상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에서는 휴지 심, 양말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지렁이를 만들어 보았고, 유아들은 책 속의 지렁이와 실제의 지렁이를 비교하며 지렁이의 움직임과 흙의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지렁이의 몸 구조와 글자를 적는 것으로 문해 놀이가 발전되었습니다.



10~11월

10~11월은 바람의 세기, 옷의 길이가 바뀌면서 땅에서 곤충을 찾던 아이들의 관심은 ‘바람, 낙엽’으로 향하였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책 속의 바람과 낙엽을 관찰하고, 바깥 놀이에서 색이 변한 나뭇잎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빨간 나뭇잎, 노란 색이네?”, “이건 둥근 바람, 저건 네모 바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동시를 지어보며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와 ‘바람’의 관계에 대해 상상하며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산소가 바람개비를 통해 더 멀리 퍼질 것 같아, 복도에 놓아 좋은 바람이 퍼지게 하자!”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나누었고, 나눈 생각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유아반에서 ‘산소 나무 발전소’를 꾸몄습니다. 형님들이 꾸민 ‘산소 나무 발전소’를 본 동생들은 “나무에 선풍기 바람개비가 있네? 그런데 나뭇잎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붙이는 등 형님 반과 동생 반의 협동 놀이는 공용 공간인 복도가 ‘산소 나무 발전소’가 있는 깨끗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양한 ‘탄소 중립 환경 그림책’을 통하여 강서화곡공동체의 영유아들은 ‘탄소 중립’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미래의 아이들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1년 동안 강서화곡 공동체에서 영유아 대상 공동프로그램(환경 그림책과 연계한 탄소 중립 놀이)은 영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들은 환경 그림책과 연계한 놀이를 통해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자원 재활용 소재 은행의 재료로 놀이감을 구성하는 등 스스로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둘러보며 생활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랑하는 생태 감수성도 향상되는 모습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 그림책과 연계한 탄소 중립 놀이가 가정과도 연계되면서 부모님도 아이들과 환경 관련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한 경험을 키즈 노트에 공유해주

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림책 속 아이가 유독 관심 있어 하는 장면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해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 아이와 함께 어떤 놀이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위하여 일상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과 작은 변화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앞으로도 실행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사들은 일 년간 환경 그림책과 연계한 탄소 중립 놀이를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며 경험한 어려움은 디딤돌모임을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매월 놀이 사례를 발표하며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일과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놀이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다양한 놀이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취감을 안겨주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강서화곡 공동체 덕분에 감동의 순간도 배가 되고 올 한해 교사로서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했음을 느끼며 강서화곡공동체의 교사로서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03



함께 하는 지구
지킴 솔루션

구로구
도담도담 공동체

함께 하는 지구 지킴 솔루션

도담도담 공동체는...

구로구의 「도담도담 공동체」는 5개의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는 셋별, 온새미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으로는 다솜, 새연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으로는 베베몬테소리가 있습니다. 도담도담 공동체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협력과 상생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교육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공동체’는 거리 공원을 중심으로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구민회관, 온새미 어린이집 강당, 삼각공원 놀이터 등을 행사에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구로 보건소, 구로 경찰서, 구로구청, 구로 도서관 등의 지역사회 연계도 편리합니다. 또한, 도림천, 안양천 등에서의 생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현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 사회에서 영유아가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활용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체 어린이집이 함께 계획하여 활동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이팩 자연순환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으로 먹는 우유 팩부터 영유아와 분리 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 순환 사업」에 참여하여 모아진 우유팩을 분리 배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 모은 우유 팩, 멸균 팩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동사무소에서 수거하여 쓰레기 봉투와 교환하였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유아가 '지구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우유 팩을 분리 배출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유 팩을 모아 부모님과 함께 가지고 오며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지구가 매우 건강해지고 있겠죠!' 쓰레기봉투와 교환하며 지구가 고마워서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에 교사인 저도 덩달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생활프라자

'버려지는 페트병, 우유 팩, 종이, 병뚜껑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새생활프라자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과자봉지를 이용하여 달력을 직접 만들어 보며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생활프라자 현장 학습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버려지는 물건이 스토리와 가치를 가진 제품 또는, 작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학습 후 영유아가 일상에서 버려지는 폐품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용품 놀이 세상

'지구야, 지구야! 뮤지컬 관람' 환경 캠페인 공연을 보고 '비.행.분.쇄',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를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재활용품 놀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휴지 속, 우유 팩, 요플레 통, 페트병 등을 가지고, 예술

“ 영유아가 '지구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우유 팩을 분리 배출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경험, 신체 놀이, 자연 탐구 등 다양한 놀이를 유아와 함께하며 배움이 생성되었습니다. 폐품을 활용해서 만든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해 주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며 자기의 생각, 느낌을 친구와 표현하며 서로의 예술을 존중하며 상상하기를 즐겼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줍기를 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였습니다.

뮤지컬 관람 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익히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놀이 지원을 통해 재활용품을 쓰레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친숙한 놀잇감으로도 흥미를 끌 수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놀잇감에서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어 놀이하며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영유아에게 잘 전달되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책하는데, 길에서 구르고 있는 페트병을 보고 스스로 '지구가 아프겠다'라고 말을 하며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유아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영유아에게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공동체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재활용품을 어떻게 놀이로 지원해줄 지



논의 및 서로의 의견을 피드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듣고 배우며 교사 역시 지구 온난화와 환경문제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단계별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간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뿐만 아닌 교사, 어린이집, 가정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보호에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함께 건강 한 걸음!'
걸으며 행복해져요

송파구
위례 공동체

‘함께 건강 한 걸음!’ 걸으며 행복해져요



위례 공동체는...

「위례 공동체」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에 위례새솔어린이집, 힐스송파어린이집, 송파더샵어린이집, 꿈초롱어린이집, 조이어린이집으로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2개의 가정 어린이집 총 5개의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배려하고, 존중하며, 안전 보육을 기본으로 더불어 건강하도록 한다”는 비전에 맞춰 영유아, 교사, 양육자, 지역주민 모두가 모아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알고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의 장소공유, 인력공유

와 각 어린이집의 놀잇감과 물품의 공유, 공동 구매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환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동기 유발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건강 한 걸음

2021	2022	2023	2024
제 1기 모아어린이집 선정	걸음으로 인한 다양한 놀이 발견	만보기 활용 건강수 측정 목표설정, 시기/연령별 흐름 파악	손목닥터 9988 활용

영유아 프로그램 「함께! 건강 한 걸음」의 흐름

이런 활동을 했어요.

위례 공동체는 비전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었고 건강을 위하여는 “함께! 건강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을 세워 영유아 걷기, 가족 걷기, 교사 걷기까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영유아, 양육자, 교사까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력예방, 응급처치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와 함께 놀이를 통한 활동을 하며 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은 다양한 모아 학습공동체 모임의 역할도 컸습니다.

위례 공동체가 함께 해온 여러 프로그램 중 ‘함께! 건강 한 걸음’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제 1기 선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하며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영유아 걷기’를 시작하며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리고 놀이하며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생태놀이와 오감놀이를 이어졌으며 또 각자의 놀이 방법도 공유



할 수 있어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즐겨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교사 걷기도 함께 실행하여 건강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에는 만보기를 활용하여 목표 걸음 수를 세우고 함께 걸어보며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걷고 뛰며 놀이하는 계기가 되었고, 2024년에는 가정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하여 포인트 쌓기까지 하면서 걷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함께! 건강 한 걸음’의 프로그램으로 생태놀이, 오감놀이, 부모참여, 환경캠페인, 지역 사회연계까지 확장되어 영유아는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하고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건강 한 걸음

‘함께! 건강 한 걸음’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리더교사는 모임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야기 나누며 걷기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고 더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 기존 계획에서 변경 또는 확장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더교사의 모임뿐만 아니라 각 어린이 집의 같은 연령의 교사들도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모임 장소를 정하고 함께 만나 같은 연령에서의 놀이와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추어 영유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밖에서 모아어린이집이 다같이 모여 걷고 놀이하며 어울립니다. 같은 연령끼리의 만남, 근거리 어린이집 2~3군데씩 만남, 형님반과 동생반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의 걷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친구들이 함께 만나 인원이 많을 때는 안전을 위하여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것까지 함께 도와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집 근처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연계로 확장하여 동네 위례 파출소를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방문해 경찰 아저씨도 만나고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송파소방서 안전 교육은 장소 공유로 모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큰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 찾아오는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중 유아반 친구들은 위례새솔 어린이집으로 모여 화재 시 대피하는 자세와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보며 실감 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의 우산을 공유하여 함께 쓰고 손을 우산 밖으로 뻗어 비의 촉감도 느끼며 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어린이집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아는 영유아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아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걷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생태놀이가 이루어지고 영유아가 스스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밖에서의 놀이가 실내놀이로 이어져 관찰했던 애벌레와 달팽이를 교실에 데려와 먹이를 주며 키우고, 주워 온 열매로는 액자 만들기가 이루어졌으며 비 오는 날의 산책 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등 다양하게 확장하였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는 물 또는 건강차 마시며 걷기를 하면서 물로 그림 그리기, 또 그림자 놀이를 통해 그들의 고마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아어린이집이 함께 만나 걷고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가장 가까운 위례새솔 어린이집에서 여분

들고 캠페인을 하며 환경보호를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행사로 모아어린이집 위례 공동체는 올해도 ‘제 4회 모아 가족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 자연생태 놀이와 걷기를 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족 걷기 행사를 통해 형제자매가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같은 모아어린이집의 공동체임을 알고 더 반갑고 좋아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고 친구들을 만나 더 큰 기쁨을 느꼈으며 부모님



들은 아이들이 모아어린이집 내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소개도 하는 상황에서 제일 궁금했었던 친구 이야기도 듣고 만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각 어린이집의 업무 분담으로, 개별적으로 했다면 많았을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었으며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다른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위례 권역의 모아어린이집이 다르지 않고 협력과 상생한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위례공동체는 ‘함께! 건강 한 걸음’을 교사도 실천하며 ‘손목닥터9988’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걷기와 위례 내에 황토길 걷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맨발로 즐겁게 황토길 걷기를 하면서 여유로움과 건강해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쌓고 사 용하며 따름이 를 이용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구매하는 건강과 절약의 일석 이조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을 위례 공동체가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함께! 건강 한 걸음」의 걷기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걷기 과정에서의 놀이와 탐색을 통해 배워 가며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였고, 교사 또한 아이들의 모습을 더 세심히 관찰하며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을 나가 걸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하늘과 땅, 주변 환경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뭇잎의 색깔 변화, 모과, 감, 매실 등 열매의 색, 크기, 촉감의 변화와 바람의 세기, 하늘의 색깔 등 자연 관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감성적인 아이로 자라고, 또 함께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개미, 나비, 잠자리 외에도 여러 곤충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먼저 주워야 한다고 말하는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 한 걸음’을 통해 다 함께 걷고 뛰어놀며 다양한 자극을 받고 서로 배움과 나눔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작용도 늘어 긍정적

인 정서가 형성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례 공동체는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위례공동체 모아어린이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진행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가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사들 간의 협력과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여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

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모아 어린이집 참여 교사의 일원으로 다양한 기회를 접하며 성장하고 지역 내 아이들이 함께 만나 어울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모아어린이집을 통해 보육 전문성이 높아지는 질 좋은 보육환경 속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CHAPTER

교사 교육 및
모아학습공동체

05



우리는 가재울공동체

서대문구
가재울 공동체



우리는 가재울 공동체

가재울 공동체는...

「가재울공동체」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가람어린이집(국공립), 나빛어린이집(가정)과 북가좌동에 위치한 별초롱어린이집(가정), 푸른숲어린이집(국공립), 4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3개 원의 원장은 2016년부터 서대문 보육 포럼 활동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대문구 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교직원들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가재울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류, 성장,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사들의 주도성 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것이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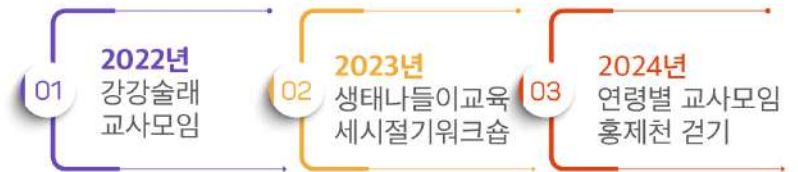
이런 활동을 했어요.

2022년 첫 원장 회의를 통해 각 원의 보육프로그램을 교류하며 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거나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습니다.

영유아들도 유능한 또래에게 배울 때, 더 잘 배우듯이 교사들도 다른 교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배울 때, 더 잘 배우고 주도성도 생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장들의 100년 이상(개별 원장 경력 20~30년 이상임) 쌓아온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일상에서 생활교육으로 경험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첫 해

2022년 첫 해는 전통 문화 교육으로 교사들이 '강강술래'를 함께 배우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문화로써 강강술래'를 배우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공동체 교사들이 월 1~2회 모여서 강강술래를 순차적으로 배웠습니다. 느리게 걷기, 빠르게 걷기, 남생이놀이, 개고리타령, 손뼉놀이 등. 영유아에게 전통 문화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공동체를 느끼고 문화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 유산인 전통 문화 강강술래를 동료 교사에게 배우며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한 해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공동체 교사들이 난지 잔디광장에서 모여서 강강술래 마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강강술래와 놀이마당(신발 던지기, 자연물 보물찾기, 과자 따먹기 등)을 펼치면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 영유아에게 전통 문화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공동체를 느끼고 문화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



2022년 12월

2022년 12월, 교사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경험한 것을 발표하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세시 절기 워크숍'과 '생태 나들이 교육' 두 가지로 구성하고 교사들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시 절기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절기에 따라 먹을거리(단오 쫄떡, 삼복 화채, 추석 송편, 겨울 저장 음식 유자청)를 만들어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유아들은 공동체의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과 절기 나들이(24절기 중 극 절기인 청명, 소서, 상강 절기에 함께 하는 나들이)를 진행하기

도 했습니다. '생태 나들이 교육'은 연 4회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교사들의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12월

2023년 12월, 공동체 교사들이 다시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프로그램을 평가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 중 '연령별 교사모임'과 '힐링 프로그램(홍제천 걷기)'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첫 교사 교육을 하고 '연령별 교사모임'을 0, 1세반, 2세반,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가재울공동체는 3년에 걸쳐 원장과 교사들이 '함께' 교류해 나가며 '변화'해 왔습니다. 10월 가재울공동체 가족운동을 준비하면서 각 원의 부모 운영 위원들과 공동으로 회의를 했고 원장 회의와 교사 회의를 거듭해서 가족운동회(340명 참석)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해부터 행사 위주가 아닌 구성원들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공유'와 '상생'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교사들은 '연령별 교사모임'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교실을 참관하는 등 '교류'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동체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3세반, 4~5세반, 4그룹으로 구성하여 모임마다 연 5회 모였습니다. 연령별로 보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홍제천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 여유있게 이야기하면서 걷고, 일과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종착점인 카페에 모여서 아름다운 폭포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HAPTER

교사 교육 및
모아학습공동체

06



동행매력 우리누리,
튼튼한 곳 파트너가 되다

은평구
우리누리 공동체

동행매력 우리누리, 든든한 곳 파트너가 되다



우리누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은평구 「우리누리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우리누리공동체는 구립 꽃가람 어린이집,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리라어린이집, 녹번푸름숲어린이집의 4개 기관으로 유형(국공립/민간/가정)과 규모가 각기 다른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누리공동체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 영유아 모두가 은평구민의 일원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은평 감(減)탄(Co2)행(action)동(洞)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주민 실천 운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 목표 및 비전
첫째, 지역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간 소통과 협력 및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 및 생태교육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다양한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탄소중립공동체

· 물리적 환경 및 강점
은평구청을 가운데 두고 우리누리공동체의 어린이집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누리공동체 주변으로 탄소중립시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은평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시범 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보행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우리누리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ESG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지구의 소중한 마음을 갖는다.
- 자연친화 생태놀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



월	탄소 중립 활동 & 자원 순환 놀이	학습공동체	부모 참여 및 양육지원
	생태 놀이 & 절기 행사		
3	플로깅, 계란판 놀이	기후 변화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시청 후 활동 계획 나누기	가정연계) 우유곽, 폐전지치 모으기
4	잔반 없는 날, 휴지심 놀이 자연물 액자 만들기 식목일 기념 모종 심기	각 원에서 실천 중인 활동 공유 및 사례 나눔	
5	주민 자치위원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상자 놀이 나비처럼 훨훨	어린이집 간 상호 참관 1 각 원에서 실천 중인 활동 공유 및 사례 나눔	양육지원) 부부의 날1
6	잔반 없는 날, 박스놀이 우비 입고 산책해요. 단오맞이 수리취떡 만들기	디딤돌 소그룹 컨설팅 1 - 생태친화놀이 도서 지원	부모 교육) 부모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7	플로깅, 박스 자동차 놀이 봉숭아 물들이기, 초복 행사	어린이집 간 상호 참관 2 디딤돌 추천 도서 적용 및 공유	부모 참여)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8	잔반 없는 날, 우유곽 놀이 수박으로 놀아요, 여름 물놀이	어린이집 간 상호 참관 3 디딤돌 추천 도서 적용 및 공유	지역사회(개방) 모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물놀이
9	플로깅, 비닐 놀이 술방앗 놀이, 추석 전통놀이	디딤돌 소그룹 컨설팅 2	가정 연계) 웨어데이, 재활용 작품 전시회
10	잔반 없는 날, 플라스틱으로 놀아요 나뭇잎 놀이, 나뭇장터	어린이집 간 상호 참관 4 소그룹 컨설팅 후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디딤돌 추천 도서 적용 및 공유	부모 교육) 조부모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11	주민 자치위원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플라스틱 놀이 고구마 줄기로 놀아요, 농작물 수확	소그룹 컨설팅 후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디딤돌 추천 도서 적용 및 공유	양육지원) 부부의 날 2
12	잔반 없는 날, 종이 원통 놀이 크리스마스, 동지 행사	소그룹 컨설팅 후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디딤돌 추천 도서 적용 및 공유	부모 참여) 겨울 간식 만들기

함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사회 안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른다.

- 어린이집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양육 지원 및 가정과의 소통을 증진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 ESG를 실천하는 우리누리

보육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



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를 통해 상호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누리공동체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 영유아 모두가 은평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봄으로써 사회 안에서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디딤돌 모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우리누리

매월 진행되는 디딤돌 모임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자원 순환 놀이와 생태 놀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문지, 계란판, 휴지심, 작은 상자



등 다양한 재활용품 활용해 찢기, 날리기, 쌓기, 굴리기, 끼우기 등의 탐색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놀이 사례 나눔 시 탐색 놀이에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확장된 놀이를 사례 나눔 시 소개하여 다른 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 간 멘토와 멘티가 되어 각 원에서 적용해 보고 평가하여 다음 놀이를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2회 생태 친화 놀이 교사 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생태 친화 놀이와 아이들과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계절별 자연물로 할 수 있는 놀이 등을 알려주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모아밴드(BAND) 운영을 통한 생태 친화 놀이 공유와 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통해서 모아 디딤돌 교사뿐만 아니라 공동체교사 전체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상생과 협력으로 변화하는 우리누리

우리누리 공동체는 모아밴드(BAND)를 통해서 놀이와 행사, 프로그램 등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디딤돌모임시 추천받은 생태 그림책 중 2가지씩 선정하여 기관별 순서를 정해 돌려가며 읽는 방법으로 자료를 공유했고, 확실히 교사가 미리 계획한 놀이나 활동을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흥미와 반응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각 원에서 놀이를 진행하고 밴드에 기록하여 공유하니 다양한 놀이가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복날을 맞아 각 원마다 계획했던 물놀이 행사를 모아 공동체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날짜와 장소, 시간을 정한 후 밴드에 공지하여 한 공간을 모아의 여러 어린이집에서 공유하며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과 놀이공간, 놀이 사례공유를 통해 어린이집 간 경쟁이 아닌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07



희망 연결고리 모아!

영등포구
양평동스타 공동체

희망 연결고리 모아!

양평동스타 공동체는...

「양평동스타 공동체」는 늘해랑어린이집(국공립), 양평2동어린이집(국공립)과 반디어린이집(국공립 가정), 한사랑어린이집(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목표 및 비전으로는 S(share) 무엇이든 나누고 T(teach) 함께 가르치고 A(assist) 아낌없는 지원과 R(respect)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공동체 목표로 함께와 같이를 추구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무렵,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시범 사업 안내가 왔을 때 코로나 시기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인근 원장님께서 서울시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늘해랑어린이집과 꼭 함께하고 싶다고 부탁하셔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시작을 앞두고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주변 어린이집의 힘든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교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의미를 들려주니 모두 긍정적으로 마음을 모아 주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원장님들의 생각과 각 어린이집마다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에 공동프로그램을 더하니 업무 과중이라는 짐이 생기긴 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커요”,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스러운 말에 그간의 어려움과 문제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의 양평동스타 공동체가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정(양육자) 협력에 대한 감동을 전해보겠습니다.

엄마의 힐링 밥상!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부모 교육으로 무엇이 좋을까 고민 끝에 요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늘 가족에게 주지만 하던 어머님들께 엄마 자신을 위한 힐링 밥상을 차리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자는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알기에 원장님들이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오이소박이, 깍두기, 냉면, 김치 말이 국수, 미트볼 카레라이스, 비빔만두 등’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어머님마다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고 가족을 위한 밥상의 의미가 더 따뜻해졌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부모 교육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범 사업 때 시작한 요리 활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힐링이 곧 우리 아이들의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모아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아 연주회!

모아 연주회는 코로나 때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 재능 기부로 시작된 활동이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안타까운 상황에 영상으로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해는 주민센터 강당에서 멋진 연주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 트럼펫, 피아노, 클라리넷, 호른의 협주는 우리 아이들과 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주자로도 함께 듣는 관객으로 참여해 주신 부모님마다 “오랜만에 음악으로 힐링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뿌듯합니다.”하고 감동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니 우리 아이들은 참 행복하구나’ 싶은 마음에 모아하기 참 좋았다 싶었습니다.



우리 동네 탐방!

2022년에 주민자치에서 마련해주신 우리 동네 탐방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매년 기다렸는데 올해도 계획에 없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때 당시 봉사자로 참여했던 부모님께서 아쉬운 마음을 들으시고 공동체 부모님을 모아서 직접 우리 동네 탐방 활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 오늘날 부모 재능 기부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동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등·하원 때 다니던 길목을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양평동 교회의 야학이 오늘 당산 초등학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일곱 살 아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자신이 갈 초등학교의 역사를 알고는 학교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또, 독립 만세 운동 시위 터를 소개받고는 “여기서 대한 독립 만세를 했어요?”, “태극기 들고 만세를 외친 곳이에요?”, “유관순 누나처럼 독립운동 한 곳 맞아요?”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집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우체국 등 동네 기관을 방문하면서 “보물 찾는 기분이에요” 하는 말에 봉사해 주신 부모님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동네 탐방 활동 이후로 부모님들께서 “당산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역사를 이야기해요”, “등·하원 할 때 꼭 독립운동 터를 지나쳐서 가려고 해요” 하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동과 마을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안겨줄 수 없었겠죠?



가을엔 모아로路!

2023년에 공동체는 한강 공원에서 부모님도 함께하는 걷기 및 놀이 활동을 했습니다. 드넓은 한강 공원에서 트레킹이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장소 크기부터 큰 차이가 있어서 긴 시간을 들여 준비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의 확인을 반복하며 준비한 행사에 생각보다 많은 모아 가정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걷고 잔디밭에서 뛰놀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모처럼 한강 공원에서 아이들과 걷고 뛰며 놀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모아로路’,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가야 할 탄소 중립 환경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환경을 살리는데 “우리 가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약속하며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할머니까지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거리를 걷기만 하고, 작년 때 보다 활동적인 게 적으니 아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걷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걷는 동안 ‘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념품으로 마련한 ‘1원아 1치킨’이 너~~~무 좋으셨다면서 “신선한 기념품이네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어요.”, “기념품 마음에 쏙 듭니다.”, “배고픈 참에 아주 좋은 선물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한강 공원 나들이예요.” 하고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둘러앉아 치킨을 나누며 그 동안 흘린 땀과 노고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140마리의 치킨을 잔디밭까지 옮기는데도 우리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부모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공원 잔디밭에 치킨을 먹으며 웃음꽃 피우는 광경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 못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 어색하게 다가온 모아 어린이집이 이젠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모아’라는 연결고리가 지금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평동스타 공동체의 행사를 내 일처럼 여겨주시고 내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는 ‘모아’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변화, 부모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모아’가 이제 양평동에 널리 소문이 나서 입소 상담 시에도 ‘모아~’, ‘모아~’ 하십니다. 또 주변 어린이집 원장님들까지도 모아에 대한 문의와 모아가 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해오십니다. 이젠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주위에 원장님들도 관심을 갖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양평동 스타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오니 어느새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모아! 확실한 건 모아가 있어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아를 통해 성장한 양평동 스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걷는 이 길에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08



모아공동체가 만들어낸
3년의 성장 이야기

강동구
강동명일 공동체

모아 공동체가 만들어 낸 3년의 성장 이야기

PART 01

독서캘린더

프로그램 공유: 강동청소년회관 어린이집의 독서프로그램을 명일 공동체 어린이집에 공유

PART 02

독서수기공모전

독서수기공모전: 수기공모전을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책 읽기활동을 장려, 격려함

PART 03

문고리도서관

마을도서관: 온마을이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웃집의 책을 대여하여 책나눔 실천

PART 04

잠자리동화 "오디오북"

오디오북: 다양한 독서활동의 장려를 위해 동화책을 부모님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오디오북 제작

강동명일 공동체는...

서울형 모아 『명일 공동체』는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공동체로 구성되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자원과 장소 공유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년 차에는 협력과 공유 시작, 2년 차에는 변화와 효율, 3년 차에는 질적 성장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서울형모아 『명일 공동체』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했습니다.

청소년회관어린이집에서 시작되었던 책 읽기 캠페인은 모아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공유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책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캘린더에 기록하는 방식과 기록을 완주한 영유아들과 부모님에게 시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년차: 책읽기 캠페인의 시작과 공동 시상식

공동체 전체가 각각 원에서 진행했던 독서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읽기 캠페인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책 1권 이상을 부모님이 읽어주거나 영유아 스스로 책을 읽고, 독서캘린더에 기록함으로써 50권 읽기를 완주하면 또 캘린더를 받아 반복해서 독서캘린더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말미에는 수기와 사진 인증샷을 함께 공모하여 공동체 시상식을 열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정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상식은 가정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독서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책읽기 캠페인 시상 안내



책읽기 캠페인 공동 시상식

2년차: 문고리도서관 실천 → 잠자리 오디오북 프로그램의 도입

책 읽기 캠페인이 자리 잡은 2년차에는 좀 더 책읽기를 활성화 해보자는 의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각 가정에 있는 책을 문고리에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책을 빌려오는 문고리도서관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학기 초에 부모님들께 신청을 받고 실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가정, 맞벌이 가정, 아파트나 주택 방문에 따른 다양한 조건, 날씨 등의 벽이 존재함에 따라 결국은 몇 개월 후 원내에서 도서 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도서관



책읽기 공모전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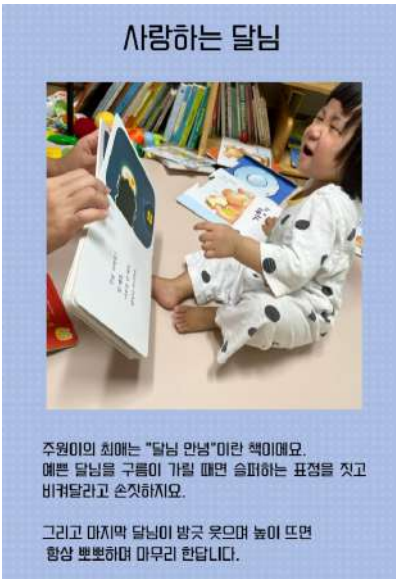
잠자리오디오북 방법 안내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줄 때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도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나눔을 통해 잠자리 오디오북이라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잠자리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하였고, 이는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과 가정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북을 통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직접 녹음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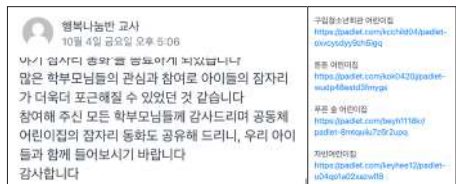
3년차: 아이들의 참여와 전체 공동체 공유

3년차에는 책읽기 캠페인 캘린더 작성과 함께 잠자리 오디오북 녹음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공동체 간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 아이들도 오디오북 녹음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책읽기로 시작된 오디오북 녹음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디오북은 부모의 동의하에 공동체 전체에 공유되어, 어린이집과 각 가정에서 다양한

게 활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느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참여와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달님아 안녕



각원 패들렛에 녹음된 오디오북 공동체 공유



귀로 들으면 더 매력적인
잠자리오디오북 신청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70여개의 오디오북을 공유하면서 “엄마도 듣고 싶어요, 더 들려주세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한 개만 듣고 자자고 했는데 1시간 이상이라도 계속 듣고 싶어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이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는 녹음하는 것이 귀찮았는데 아이들이 녹음에 참여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렇게 공유되고 나니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공동체 어린이집 교직원 입장에서는 ‘과연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속하게 가능할까?’라는 부담이 무척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했던 3년의 시간 동안 지속성이 가능했던 건 서로가 함께 힘을 보태고 가정이 협력하고 아이들이 행복했기에 어느샌가 성장했고 함께 즐거웠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서울형모아 명일 공동체의 책 읽기 캠페



잠자리오디오북 패들렛에 저장

인과 잠자리 오디오북 프로그램은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한 이 프로그램은 독서 활동을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게 만들었고, 가정과 공동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책읽기캠페인



잠자리오디오북

09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이공동체

송파구
방이 공동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이 공동체

방이 공동체는...

「방이 공동체」는 방이어린이집(국공립), 방이두리어린이집(국공립), 꼬마수피아어린이집(가정), 누리봄어린이집(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이어린이집을 제외한 3곳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영아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4곳의 어린이집은 방이시장이라는 지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이공동체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호 협력하며, 특히 어린이집 간 교사 모임을 통해 보육 활동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아 모집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간 형제 입소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제일

발전된 사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루어 냈다는 점을 강점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방이 공동체에서는 연령별 차별화된 공동프로그램, 함께 하는 행사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개할 방이 시장 놀이는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이 공동체는 지역 재래시장인 방이시

공동프로그램 소개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방이 시장 내 상점을 이용하고 구매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지역사회 연계 계획에 있어서 아이들이 상점을 방문할 때 상인들의 불편한 표정을 보게 되면 교사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혹시나 판매하는 상품이 망가질까, 하는 걱정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매년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변화하고자 먼저 상인들에게 우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영아들도 친숙하고, 어린이집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게 상인들을 찾고,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 약속을 하였습니다.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가까워진 방이시장 상인들 덕분에 우리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풍성해졌고 방이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며 방이 시장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집 연중 행사에 있는 시장 놀이를 형식적인 시장 놀이가 아닌 우리가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놀이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상인회와 협업하여 날짜를 조율하고, 옥수수, 떡, 빵, 요구르트, 과일, 채소 등 우리가 그동안 지역사회 연계로 다녀온 아동 친화 가게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방이 페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 놀이에 참여하는 부모는 상인회에서 10,000원을 방이 페이로 환전하면 12,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2,000원의 차액은 공동체에서 부담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상인회에서 환전하고, 아동 친화 가게에 찾아갑니다. 공동체에서는 아동 친화 가게에서 구매하는 재료들로 음식 해 볼 수 있는 미션지를 제작하고, 연말 나눔 활동할 모금함으로 정성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방이시장이 가까이 있지만 젊은 부모님들은 재래시장 이용 횟수가 적었고, 첫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시장 상권은 침체되었습니다. 시장 놀이하는 한 시간 동안 4개의 어린이집에 170명의 원아와 280명



이 넘는 부모님들이 시장을 누비기 시작하니, 상인들은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며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두 번째 시장 놀이에서는 첫 해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장 놀이 하는 동안 교통 통제 협조를 받았고, 방이공동체와 방이시장 인근 어린이집들도 참여하며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 진행한 세 번째 시장 놀이에서는 부모님들의 플리 마켓 참여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시장 놀이가 진행되어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물건을 골라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회 동안의 방이 시장 놀이는 점차 발전되고 다양성을 제공하며 지역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3년 동안 방이 시장 놀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지역사회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영유아에게는 놀이를 매개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놀이를 중심으로 화폐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나눔을 구축하게 되었고 방이 공동체 및 방이 시장, 주변 지역어린이집과 지역 아동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에 상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이 공동체와 방이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며, 방이 시장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의 매출이 3,86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상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평소보다 매출이 많아져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가게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넷째, 시장놀이가 지역사회와 어린이집, 학부모를 잇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봄에는 방이 공동체가 주최하는 시장 놀이로 축제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방이시장 상인회가 주최하는 축제에 지역어린이집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전시회, 부스 체험, 사생 대회등 방이시장 상인회는 우리공동체와 지역 어린이집에게 축제 한 자리를 내어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방이 시장행사를 통해 상인회 회장님도 훗날 인터뷰에서 “방이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니...”라며 기쁨을 나타내시며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매출의 영향으로 상인회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방이 공동체는 3년간 진행하며 우리는 지역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상인들을 만나며 그동안 어린이집 안에서만 있었던 우리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이 공동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철학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충분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탐구하며 부모, 교사의 사랑을 시작으로 나눔과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유아의 행복과 존중의 이음동의어는 부모와 교사의 행복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우리 ‘방이 공동체’에서는 가정과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10



리움미술관 옆
튼튼한 모아

중구
튼튼한 내 편 공동체



리움미술관 옆 든든한 모아

든든한 내 편 공동체는...

「든든한 내편 공동체」는 중구 내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신당삼성, 약수, 중구청 직장, 충무, 필동)이 함께 모여 구성하였고, 공동체의 이름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 슬로건에서 착안하여 어린이집 간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정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행복, 성장, 지원으로 ‘자연 친화 활동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비전을 추가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시민 공원인 남산공원이 있고 공동체 내 모든 어린이집이 남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산 산책길, 남산 자락 숲길, 남산한옥마을, 장충 유아숲 체험원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며 생태·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술관, 도서관 관련 교육 및 가정 연계 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보육(장애통합, 다문화)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운영 효율화, 보육 전문성 향상, 부모 참여 활성화,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상생·협력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리움미술관 옆 든든한 모아’ 활동은 공동체 기관 중 하나인 삼성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신당삼성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모아 공동체와 공유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지역과 근접한 리움미술관을 활용하여 이를 연계한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심화하여 「든든한 내편 공동체」 유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내 기관 연계

삼성리움미술관



프로그램 공유

미술 심화 교육프로그램



든든한 내 편
지역 네트워킹

‘리움미술관 옆 든든한 모아’

1. 「든든한 내편」 공동체와 함께하는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1학기

1) 프로그램의 시작을 위한 원장과 교사 설명회

「든든한 내편 공동체」는 신당삼성어린이집의 주체로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삼성복지재단에서 개발한 미술 심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후 일정을 협의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교안 공유

삼성복지재단에서 리움미술관 전시 작품과 관련하여 심화 연구한 주차별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 교안을 전달받아 교사들이 유아들의 작품 감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리움미술관 방문 및 감상활동

「든든한 내편 공동체」 어린이집이 일정에 맞춰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 교육 및 교안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교사와 함께 유아 개개인의 감상 후 느낀 생각과 궁금증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 유아들의 심미적 감성 증진과 다양한 표현을 독려하였습니다.

2.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2학기

「든든한 내편 공동체」의 1학기 리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유아들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리움미술관에서는 유아들의 미술관 관람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1) 리움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교사 교육 및 전시회 관람

2학기 프로그램 진행 전 참여 기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리움미술관의 새로운 전시 작품에 대한 안내와 유아들의

미술관 참여 경험의 의미를 풍성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교사교육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후에 전시회를 관람하며, 교사들도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영유아의 감상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 리움미술관 전시회 교안 공유 및 활동 공유

새롭게 전시된 리움미술관의 기획전 작품들과 상설전에 전시된 고미술품과 관련된 교안을 각 공동체 어린이집이 공유하여 어렵게 느껴졌던 작품에 대한 감상 방법을 지원하고, 유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든든한 내편」 외 대상 확장을 통한 타 공동체와 리움미술관 관람

「든든한 내편 공동체」로만 이루어졌던 리움 전시 연계프로그램이 2학기에는 중구 내 2개의 모아공동체(가치 공동체, 든든한 내편 공동체) 및 용산구 모아공동체로 확산되어 전시회 교안 및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 하반기에 진행된 [아니카이] 및 [고미술 상설전]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리움미술관 관람 후 바로 진행되는 창작 활동

전시회 관람 후 각 기관으로 돌아가 감상을 떠올리며 사후 활동을 했던 것과 달리 미술관 내 창작활동 공간에서 작품 전시와 연계된 재료를 통하여 유아들이 느끼고 상상한 내용을 자유롭고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유아들은 리움미술관의 전시 작품들을 관람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했으며, 미술관 관람 횟수가 늘어날수록 작품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나 생각들이 풍성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아들에게 전시회 관람은 다양한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유아들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재해석하여 느껴지는 느낌을 직관



적으로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리움미술관 관람을 준비하는 사전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정보들을 공동체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리움미술관의 관람이 유아들의 미술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교사들 간 정보교류는 리움미술관의 관람뿐 아니라, 감상 후 확장 방법까지 논의하며, 관람 후 작품을 표상하고 이를 유아들만의 전시회까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단체 방문이 어려운 리움미술관 관람이 유아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만족하고, 방문 횟수를 늘려 예술경험이 자주 제공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리움미술관을 경험한 유아들이 부모님에게 미술관의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느낌을 설명해 주고 표상한 작품들을 직접 보며, 유아 시기의 예술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든든한 내편 공동체」는 리움미술관

에서 교사와 유아들에게 미술관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 어린이집 업무 경감과 공동체 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술관이 일회성 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제공되도록 반복적인 관람의 기회를 공동체 안에서 논의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1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운김이 있는 곳

중랑구
운김이 있는 곳 공동체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윤금이 있는 곳

윤금이 있는 곳 공동체는...

‘윤금이 있는 곳’의 ‘윤금’은 ‘여럿이 함께 일할 때 우리나라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어린이집 공동체가 모여 따뜻한 기운으로 함께 일할 때 긍정적인 힘이 우리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ESG 경영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금이 있는 곳 공동체」는 중랑구 신내지구의 4개소 어린이집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국공립 2개소,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 어린이집인 새우개하나어린이집은 큰 강당과 텃밭, 옥외놀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 교육, 교사 교육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시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내데시앙어린이집(민간)은 차량을 공유하여 행사 및 견학 시 차량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꿈어린이집(국공립 가정)과 우주어린이집(가정)은 소규모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동체에서 바자회, 운동회 등을 함께 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근 거리에 위치하여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할 수 있고 함께 활동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삭막해지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세상이 더 맑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며, 「윤금이 있는 곳 공동체」는 ESG 경영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고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환경보호와 나눔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동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매일 매일 더 아름답게 변화하는 우리 동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윤금이 있는 곳

리사이클링 재활용 놀이

- 재활용품으로 놀기
- 상자박스로 놀기
- 페트병으로 놀기
- 휴지심으로 놀기
- 1회용 컵으로 놀기 등
- 장난감 바꿔 놀기
- 장난감 공유

우리동네 환경보호

- 환경보호 캠페인
- 우리동네 쓰레기 줄기
- 재활용 분리수거
- 탄소배출 줄이기
- 1회용품 제로 챌린지
- 구청장님께 환경보호 편지쓰기
- EM 흙 공 하천 보호하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 우유곽 재활용센터에 판매 후 수익금 기부
- 사용하지 않는 물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
- 재활용품 작품 전시회
- 바자회 수익금 기부

1. 장난감을 안 사도 재미있어요!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놀이하기!

꼭 새로운 장난감을 사야지만 재미있을까요? 우리 운김이 있는 곳 아이들은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을 가지고도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놀잇감을 이용해서 놀이하는 날!’ 장난감 대신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일회용품을 깨끗하게 씻어서 놓고 자유 놀이를 해 보았습니다.



박스로 집 만들기

재활용품은 비구조적 놀잇감이 되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쭉쭉 키워주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소리 나는 악기가 되고, 종이 박스가 소꿉놀이 집이 되고, 상자 여러 개가 모여 자동차가 되고, 휴지심은 동그란 망원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놀잇감은 새로 산 장난감보다 더 소중한 장난감이 되었고, 친구들과 협동해서 만든 커다란 집은 우리 교실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휴지심 망원경



상자 자동차

2.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환경을 보호하는 운김이 있는 곳 친구들!



① 환경보호 포스터 만들고 캠페인 하기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만든 환경보호 포스터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돌며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지켜요!” 아이들의 예쁜 목소리가 동네 여기저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② 우리 동네 쓰레기 줍기
노란 모아 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동네로 나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③ 재활용 분리수거, 탄소배출 줄이기 실천하기

가정과 연계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난방 1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다회용기와 다회용 가방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④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하기
각 원에서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⑤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 주세요!
구청장 할아버지께 편지 보내기
구청장님께 우리 아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편지에 적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⑥ EM 흙 공 만들어 우리 동네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EM 흙 공은 하천의 수질 정화 작용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EM 용액과 고운 황토, 발효 분말을 섞어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는 흙 공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흙 공을 발효시킨 후 우리 동네 하천에 흙 공을 던져 보았습니다.

3. 나눔으로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 ① 우유곽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하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자주 마시는 우유곽을 씻어서 차곡차곡 모아 지역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주민센터에 기부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 ②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모아서 우리 동네 '아름다운 가게'에 나눔하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모아 우리 동네 '아름다운 가게'에 나눔하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윤금이 있는 곳' 사랑 나눔 축제!

우리 공동체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열어 재활용 작품 전시회, 사진 전시회, 아나바다 바자회, 먹거리 장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행사 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기부하며, 바자회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바다 장터



재활용품 작품전시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마을에서 터를 잡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윤금이 있는 곳 공동체」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동네는 앞으로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바자회 수익금 기부하기

기획·총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제작 언프레임

* 본 사례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사례집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